

“광주가 개헌 통한 정치권 새판짜기 중심에 서야”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3> 손학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최근 지지율 정체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개헌은 의지와 결단, 선택의 문제다. 개헌은 개혁이고 호헌은 수구다”라고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고 의지는 강고해 보였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저평가주’로 평가받아 왔지만 정치권의 새판짜기 속에서 국민의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것이라 기대감도 보였다. 지독히도 운이 나쁜 정치인으로도 평가받고 있지만 하늘의 뜻으로 여기고 더욱더 열심히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다짐도 했다.

특히 손 전 대표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다. 그는 “호남이 없었다면 오늘의 손학규도 없었을 것”이라며 “광주는 손학규 마음의 상징이고 광주에 민주주의자 손학규의 혼이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개헌이 바로 호남정신이며 광주가 개헌을 통한 새판짜기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호남이 영남패권주의에 기생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고 역설했다.

그는 또 “민주당 특정 후보의 대세론은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향후 대권 가도에 있어서 자신감을 보였다.

아울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국민의당과 통합·연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대담=박지경 서울취재본부 정치부장

- 이번 대선의 의미는.
 - ▲ 정치의 새판을 짜는 것이다. 즉, 정치의 틀과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촛불시민’이 원하는 혁명을 완수하는 길은 새로이 나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번 대선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의 변곡점이자 대전환을 이뤄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어떻게 바꾸자는 것인가.
 - ▲ 사람과 정당만 바꾸는 것은 껍데기만 바꾸는 것이다. 체제까지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정치교체이고, 세대교체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득권과 패권, 특권을 철폐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 ▲ 제왕적 대통령제의 무소불위 권력 아래서 비선실세가 나왔다. 개인적 부도덕성만으로 치자할 일이 아니다.
 - 그래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인가.
 - ▲ 국민의 삶과 의식 수준은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이를 담아낼 국가운영 시스템과 제도는 뒤떨어져 있다. 촛불민심은 “이게 나라냐” 할 정도 아닌가. 차제에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낡은 시스템과 적폐를 걷어내야 한다.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지금 체제의 근간인 87년식 헌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 개헌에는 무엇이 포함돼야 하나.

사람·정당만 바꾸면 껍데기만 변화

체제까지 바뀌어야 진정한 정치교체

개헌은 의지와 결단, 선택의 문제

대선전에도 시간상 충분히 가능하다

▲ 개헌은 단순히 권력구조 하나만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 더 큰 행복을 보장하고 더 좋은 민주주의를 누리는 국민주권시대를 열어야 한다. 재벌과 검찰을 개혁해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지방분권을 강화해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에서도 잘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야 한다.

-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은 어떻게 해야 하나.
 ▲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갈등과 증오가 되풀이됐던 양당제를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책임총리에 의한 독일식 의원내각제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한 국회 구성이 그것이다. 우리에게 다당제는 이미 현실이 돼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여소야대가 될 거다. 대통령 혼자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다당제·합의제 연립정부가 필요하다. 다만, 헌법 내용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광장의 민심이 헌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동인이 될 거다.

- 대선 전 개헌 논의는 촛불민심을 왜곡하는 것이고, 대선 전 개헌은 시간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 있는데.

▲ 개헌은 개혁이고 호헌은 수구다.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정당이 어디였다. ‘개헌저지문건’ 만든 당이 어디였다. 촛불민심을 호도한 정당이 어디였다. 나는 대선 전에 개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간상으로 개헌은 충분히 가능하다. 개헌은 의지와 결단, 선택의 문제다. 그러나 대선 때까지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선 전에 다음 대



통령이 개헌을 해야 한다는 고리 즉 구속력 있는 장치를 만들어놔야 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하겠다’는 정도의 공약으로는 구속력이 약하다.

- 호남의 관점에서 개헌은.
 ▲ 호남은 소외와 차별의 땅이었다. 독재세력에 의한 최대 희생지였고 지역 패권주의의 최대 피해지였다. 국민의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권에서 호남은 차별받았다. 참여정부도 예외는 아니지 않았다. 지금 호남인들은 ‘제2의 참여정부, 참여정부 시즌2’를 원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열린우리당화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호남은 역사적으로 함께 잘사는 사회를 추구해왔다. 호남정신, 5·18광주정신은 공존과 연대의 정신이었다. 개헌은 바로 그 호남정신을 따르는 것이다.

특히 개헌은 호남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현 대통령제는 승자독식 구조로 인한 계층적·지역적 독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국 영남 패권주의다. 이미 실질적으로 이뤄진 정권교체라는 명분만 갖고 호남이 더 이상 영남패권주의에 기생해서는 안 된다. 개헌을 통해 호남이 정권을 창출하고 권력 분점을 누리고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3지대론, ‘빅텐트론’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전망은.

▲ 민주당 특정 후보의 대세론이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기득권·특권·패권세력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개혁세력이 반드시 만들어질 것이고 새로운 정치의 주체세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2~3월

께 정치권에 빅뱅이 이뤄지고 그때 정치의 새판이 짜질 것이다. 이때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이동이 있을 것이다.

- ‘국민주권 개혁연대’를 만들어 국민의당과 통합하려한다는 전망이 있는데.

▲ 더 지켜봐야 한다. 정치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두달 전에 이런 상황이 될지 누가 알았나. 그러나 기득권과 패권집단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함께 만들어가자는 데 동의하고 뜻이 같다면 동지가 될 수 있다.

- 반기문 전 유엔총장과 함께 할 수 있나.

▲ 민주당 내 패권세력은 반 전 총장을 여당사람이라고 찍어서 배제하려 한다. 반 전 총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직은 모른다. 새로운 정치의 주체세력이 될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한다.

- 새누리당을 박차고 나온 ‘바른정당’과도 연대가 가능한가.

▲ 박근혜 정권 탄생과 박근혜 체제의 동반자로서의 반성과 성찰을 통해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는 것이 먼저다.

- 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이번 대선을 계기로 가능할까.

▲ 연정은 시대정신이다. 다양성과 공존은 우리 시대의 가치다. 개헌을 대선 전에 하면 연정은 당연히 가능하다. 만일 대선 전 개헌이 안 되면 헌법의 방향을 다당제에 기초한 연립정부가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 민주당에서는 벌써 야권통합이나 후보단일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 총선으로 이미 현실화된 다당제의 당위성을 무시한, 대선 승리를 위한 단순 통합 논리로 그야말로 오만한 패권주의의 극치다. 기득

민주당 특정 후보 대세론 끝까지 안가

2~3월 정치권 빅뱅 이뤄질 것

야권통합 얘기는 패권주의의 극치

반기문·국민의당과 연대 더 지켜보아야

권 논리에 불과하다. 통합 강요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 지지율 정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원인은 또 대책은 있나.

▲ 나 자신이 아직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 탄핵정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이다. 민심은 탄핵이었지만 정치권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건설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민주당에서 꼭 탈당을 해야 하나.

▲ 실리적 측면에서는 당적을 갖는 게 유리했다. 하지만, 강진에서 내려온 것은 모든 것을 바꿔 새판을 짜기 위해서였다. 지금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 살아있고, 통합과 연대의 정신이 있던 그 민주당이 아니었다.

- 100일 민심대장정이 끝나는 날에 북한 핵실험이 있었고 이번 정계복귀 선언과 함께 대통령이 개헌론을 들고 나오고 ‘최순실 파문’이 터지는 등 정치적으로 운이 없다는 얘기가 도는데.

▲ 좀 더 열심히 해서 준비하라는 하늘의 뜻이라 여긴다. 나라 경영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경고이며 단련하라는 것으로 생각한다.

- 손학규에게 호남은.

▲ 광주는 손학규 마음의 상징이고 광주에 민주주의자 손학규의 혼이 있다. 호남이 없었다면 오늘의 손학규도 없었을 것이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호남은 어머니처럼 큰 품으로 맞아주시고, 포용해 주셨다. 이제 제가 호남에 진 빚을 갚을 차례다.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태영21병원 개원 5주년

박문경 초청음악회
| 전, 광주시향 첼로수석 |

바히르 챔버 오케스트라 협연

2017년 1월 19일(목) 7:00(PM)
태영21병원 세미나실

인공신장실(아간투석)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합검진센터(전신 MDCT 보유) | 입원실(46 bed)
당뇨병·갑상선 연구소(국가공인) | 아침 7:30분 부터 검진사각
유방클리닉(외과 전문의)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 광주신세계백화점 건너편(국민은행 2F)

신세계 백화점
유스퀘어 터미널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암로 392(월곡2동 679-3)